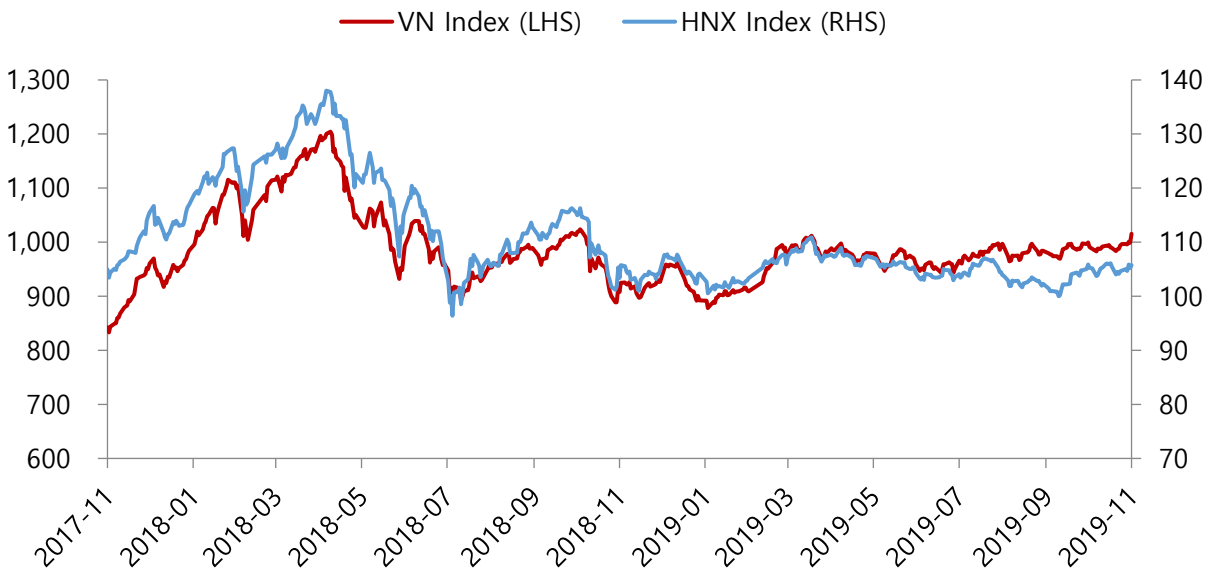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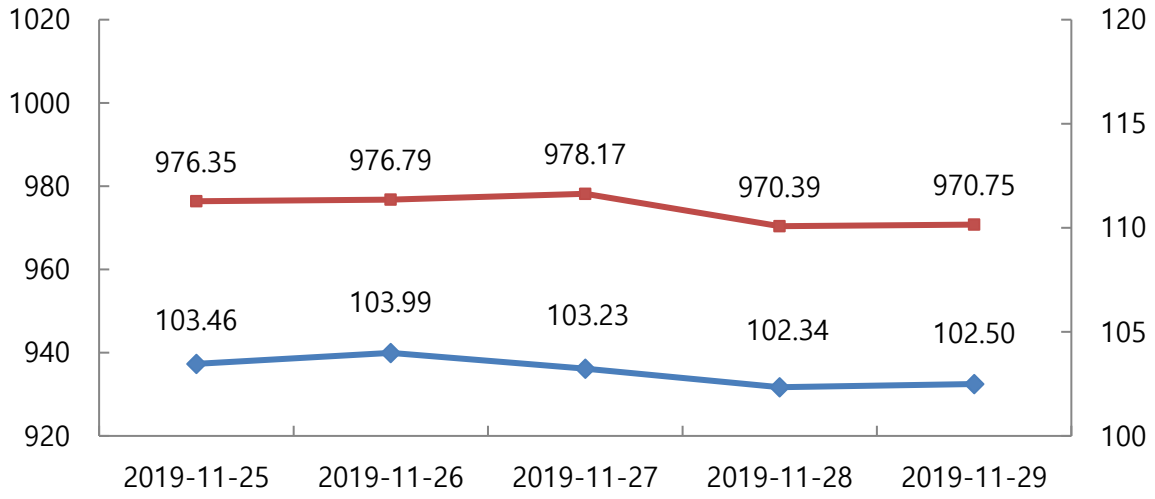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이번 주 베트남 증시는 횡보 양상을 보였다. 지난 주 970선으로 하락했던 VN 지수는 970선 횡보 후 29일 전일 대비 0.36포인트(0.04%) 상승한 970.75로 장을 마감했다. HNX 지수 역시 25, 26일 2영업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27, 28일 각각 큰 하락세를 보였고, 29일 전일 대비 0.16포인트(0.16%) 상승한 102.50으로 장을 마감했다.

■ 개별 기업 뉴스

○ 빈그룹, 베트남 10대 기업 중 유일 민간 기업

빈그룹이 2019년 매출액 기준 베트남 10대 기업 중 유일한 민간 기업의 자리를 유지했다. 시장조사업체 VNR과 온라인신문 VietNamNet이 선정한 베트남 500대 기업 연간 순위에서 빈 그룹은 6위를 차지했다. 베트남 최대 부동산 사업 및 소매, 의료, 교육, 자동차, 스마트폰 및 전자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빈 그룹은 지난 해 122조 5700억 동(52억 800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은 92조 7400억 동(40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 콘도텔 개발업자 엠파이어 그룹, 연 수익금 지급 중단

다낭 코코베이 콘도텔 복합단지의 개발사인 엠파이어 그룹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속했던 연 수익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엠파이어 그룹은 1,700명의 구매자들에게 내년부터 12%의 연 수익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그룹의 회장은 다낭 코코베이의 재정 위기가 2017년 08월부터 시작되었고 콘도텔 업계가 마주한 법적 제약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엠파이어 그룹은 2017년 이후부터 손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의 누적 손실은 1340억 동(578만 달러)에 달한다. 부채는 10조 1700억 동(4억 3840만 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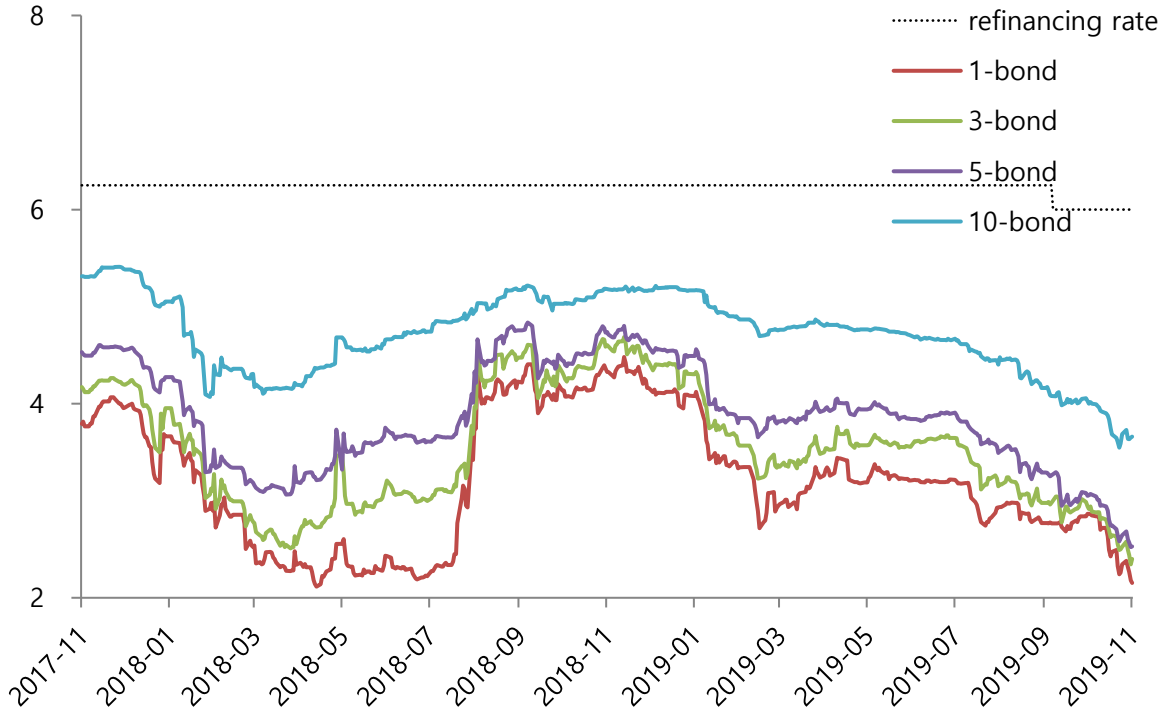
2. 주요 경제 동향

■ 베트남, 올해 11 개월 동안 FDI 318 억 달러 유치

계획투자부 산하 외국인 투자 기관(FIA)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1개월동안 외국인직접 투자(FDI)로 318억 달러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액수이다. 이 중 146억 8000만 달러가 3,478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개수는 28% 증가, 자본금은 7%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제조 가공업 분야가 215억 6000만 달러로 전체 FDI 중 67.8%를 차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 분야를 유지했다. 부동산업이 33억 1000만 달러(10.4%)로 2위를 차지했고, 도소매업 및 과학기술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최대 FDI 유치 도시는 전체 중 21.5%인 68억 2000만 달러를 유치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시가 차지했고, 호치민 시는 54억 8000만 달러(17.2%)로 2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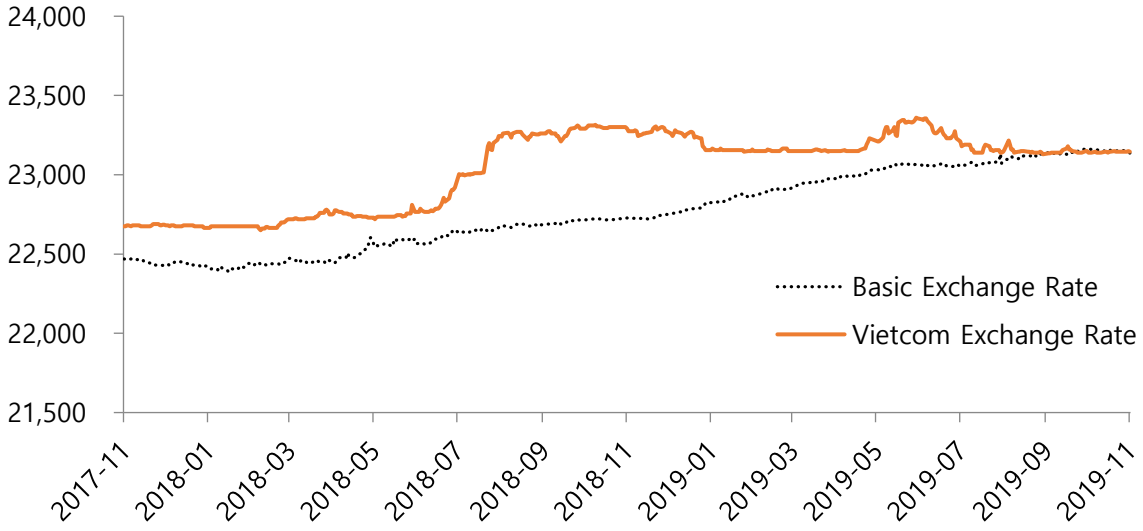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9-11-29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25	23,125	23,245



■ 베트남, 소비자 대출 규제 강화

베트남이 소비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자 목표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중앙 은행(SBV)가 발의한 시행령에 따르면, 2021년부터 소비자 대출은 금융 회사의 총 대출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은 2022년 60%, 2023년 50%, 2024년에는 30%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다. 금융 회사는 중앙 은행 산하 국가 신용 정보 센터에 부실채무 기록이 없는 고객들에게만 대출할 수 있으며,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중앙 은행, 부동산 업체에 압박 강화

베트남 중앙 은행이 주로 부동산 업체에 주어지는 중장기 대출용 단기 예금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중앙 은행에 따르면, 비율은 현재 60%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40%로 감소할 예정이며, 2020년 9월까지 37%, 2021년 9월까지 34%, 궁극적으로는 2022년 9월까지 30%로 감소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은 대부분의 중장기 대출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이는 해당 부문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불안정과 어려움으로 인해 위험하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출용 단기 예금 비율의 감소는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거시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은행 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앙 은행은 설명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베트남 건설부, 첫 부동산 시장 분기 보고서 발표

베트남 건설부가 첫 국내 부동산 시장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 22개 시/도의 정보를 활용해 편집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총 134,688채의 아파트 규모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 167개가 라이선스를 승인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3,184채의 관광 아파트 및 720개의 빌라로 이루어진 10개의 프로젝트 또한 진행되었다. 한편 완공된 주택은 22,004채에 달했다. 건설부는 3분기 하노이 및 호치민 시의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하노이 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전 분기 대비 0.21% 상승했고, 호치민 시의 경우 0.77% 상승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 GS, 베트남에 LNG 발전소…원전 3 기 규모 초대형 사업

GS에너지가 해외 전력시장 개척에 나선다. 베트남에 원전 3기 규모(3GW)로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세운다. GS에너지는 28일 베트남 최대 자산운용사인 비나캐피털과 베트남 내 LNG복합화력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베트남 남부 지역에 3GW 규모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세워 운영할 계획이다. 3GW는 베트남 총 발전설비 용량(50GW)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GS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베트남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 발전연료인 LNG를 자체 도입하고 저장·기화설비까지 함께 운영함으로써 LNG 밸류체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11/995856/)

■ SK 건설, 하노이와 투자 MOU...스마트시티 사업 수주 청신호

SK건설이 베트남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SK건설은 28일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하노이 인민위원회 의장과 스마트 위성도시 투자 협력각서(MOU)를 체결했다. SK건설은 그동안 베트남에서 플랜트 사업만 수주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시티 구조물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맡을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개발은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로 추정된다. 베트남 주택시장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해 매년 10만 가구 이상의 수요가 생기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과 달리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베트남과 맺은 MOU를 바탕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More information: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Z3X6KZV)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